

북한의 교통, 물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4개의 키워드

안병민 | (사)북한경제포럼 회장 | speyer1959@naver.com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길>이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으로 뜻풀이가 되고 있다.¹⁾

인간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시점부터 수렵, 채취, 재배, 교환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의식주를 영위해 왔으며, 이러한 경제활동은 길을 통한 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인 <길>이 모두 봉쇄된다는 것은 혼란과 고통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대외교역 수송 회랑인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모두 단절된 곳, 북한의 교통, 물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4개의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봉호 침몰 사건

2021년 5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오키 제도 50km 해상에서 북한 선박 청봉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

청봉호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의 5,500톤급 선박으로 북한 동해의 청진항에서 황해북도 송림항까지 철제품 6,500t을 선적 중이었다고 한다. 침몰된 화물의 분량을 철도로 수송할 경우, 약 1,300량 이상의 화물열차가 필요한 막대한 분량이다.

북한에서 동서 간 수송이 필요한 중후장대(重厚長大) 대형화물들은 주로 해상운송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2) 침몰 선박인 '청봉호'는 '고산호', '태평산호'와 함께 북한 동해안 항만에서 제주도 남쪽 공해상을 경유하여 북한 서해 쪽 항만을 연계운송하는 대표적인 선박이다(<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63338068963>).

이용하고 있다. 동해 측 항만에서 한반도 남단을 거쳐 서해 측 항만으로 연결되는 북한 동서연결항로는 북측의 아킬레스 근육과도 같다. 일찍이 북한의 조선 지리 전서에서도 ‘우리나라 배들이 오늘 공해상으로 1,400~1,500마일이나 되는 먼 구간을 돌아서 항해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동해·서해를 연결하는 정기항로가 개척되게 된다.’라고 언급된 바 있다.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최단 거리 항로 개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2004년 6월에 우리 정부는 북측과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무해통행권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기존 이용 항로보다 통행 거리는 223마일, 항해시간은 20~30여 시간 단축되는 안전하고 신속한 항로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천안함 사태로 북한 선박의 남측해상교통로 통과가 봉쇄되었다. 이후 북한은 내부의 만성적인 육상수송난으로 해상운송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로 인한 선박 자재 반입 제한, 선박 노후화로 청봉호 침몰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고, 경제난으로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육상교통망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2개 중요고지와 통나무

북한은 202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에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고지를 제시하였다. 12개 중요고지는 알곡, 전력, 석탄, 압연 강재, 유색금속, 질소비료, 시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 철도화물수송량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통나무이다.

북한에서 통나무는 건축자재, 철도용 침목, 전신주로 활용되는 중요 자재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한 북한에서 12개 필수품목에 거론될 만큼의 전략자원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나무가 12개 필수품목으로 제시된 것은 북한 화물수송의 80%를 분담하는 철도의 침목 교체가 매우 시급하며, 통나무를 침목 재료로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철도 침목은 레일을 고정해 철도 궤간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해주면서 무거운 열차 하중을 지면으로 분산시키는 철도의 척추 및 관절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침목의 재질은 나무, 콘크리트, 플라스틱, 철, 합성수지 등이 사용된다. 보통 PC 침목이라고 불리는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 침목이 강도와 내구성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북한에서 PC 침목 제작에 필요한 철근이나 콘크리트는 다른 건설 부문에 필요한 전략

자재이다. 따라서 철도용 침목은 PC 침목과 대체 가능한 통나무를 활용한 목제 침목을 생산, 공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제 침목은 제작단가는 저렴하나 충격에 약하고 부식이 쉬운 단점이 있다. 북한의 김일성이 ‘철도가 운행되는 것은 인체에 있어서 피가 순환되는 것과 같다’라고 칭송한 철도의 침목이 통나무로 제작되는 경제 현실인 것이다.

동서 연결 운하

2022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대운하 건설 계획을 언급하였다. 김정은은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북한의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구상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에 제기되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기간에 동서로 분리된 북한 해운의 문제점을 인식, 동해의 하천과 서해의 하천을 운하로 연결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1953년에 김일성대학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서해의 대동강과 동해의 용흥강(금야강)을 연결하는 운하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동서 연결 운하사업은 대동강 수계에 5개 갑문(남포, 미림, 봉화, 순천, 성천 갑문)만을 건설하고 북한 중앙부의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 천문학적 비용 등의 경제적 문제로 1987년에 중단되었다.

이렇게 실패한 운하사업을 35년 만에 김정은이 다시 제안한 배경은 무엇일까? 김정은은 이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 수립>을 전제로 동서 연결 운하사업의 재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북한지역은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과 같은 대형하천과 수풍호, 운봉호, 장진호 등과 같은 호수를 이용한 내륙 수상 운송이 활성화되어 있다. 내륙 수운을 이용한 북한지역 동서 간의 연계는 북한이 선호하는 최적 운송 회랑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은 서방국가들이 경제공황 시기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했던 사례처럼 ‘김정은 방식의 국토대개조계획’의 대내외 선전 및 주민들에 대한 경기회복 기대감 제시, 그리고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인 동서 간 수송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동서간 연결은 아니지만, 중단기적으로 대동강과 예성강 수계에 대한 수송로

정비, 안정적인 수자원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물류라는 개념

물류란 원·부자재가 생산현장에 투하되어 생산설비에서 완제품을 생산, 출하해 이것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수송·하역·포장·보관 등의 모든 과정을 일컫는 개념이다.³⁾

북한에서는 물류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이라는 개념은 생산적 및 소비적 목적을 위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넘어가는 노동생산물의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물류에 관한 법률은 없으며, 사회주의상업법이 상품유통에 관한 일반 규정(상품 공급과 판매, 구매, 사회 급양, 편의 봉사, 상품 보관관리)을 정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상태에서 제한된 재화를 효과적으로 생산, 수송, 판매, 공급, 보관하기 위한 법 제도의 시급한 정비 필요성을 인식,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였다.

2022년에는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사회급양망 조직의 중앙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급양법을 채택하였으며,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양정법을 수정, 보충하였다. 주요 내용은 구매, 보관, 가공, 공급, 판매에 대한 중앙통제의 강화였다. 또한 비상방역법의 수정·보충을 통해 비대면 결제를 장려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찰 유통 시의 세균 전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전화기를 이용한 전자지불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도로망, 철도역에 감시 및 검역초소를 설치하였고, 항만과 공항에 대한 방역 통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인적, 물적 이동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물자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흐름(물류)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8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상품유통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물류시스템(상업망의 조직 운영과 상품의 확보, 보관, 공급, 판매 등 상품유통)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3) 한경닷컴 사전(<https://dic.hankyung.com>).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2017. 10.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와 전망」, 『JPI정책포럼』, 2010, No. 2010-18, pp.9~11.
- 진희관·안병민 외, 『통일교육, 한반도평화를 보는 북한 12가지 시선』, 늘품플러스, 2020.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한경닷컴 사전, <https://dic.hankyung.com>.
- UIP뉴스, <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63338068963>.